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고통 여전한데 가해자 없다니요”

광주·전남 시민단체 전국적 관심 촉구...광주서 첫 순회 기자회견
“공식 사망 1656명 지역 신고율 0.56% 불과...피해자 적극 찾아야”
“문 정부 4년 재발방지 조치 없고 특조위 진상규명 대상서도 빠져”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상조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를 비롯 광주·전남 환경·소비자 단체는 12일 오전 광주시 서구 이마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지역 건강피해자 중 신고율이 0.56%에 불과해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광주시 동구 환경운동연합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가습기살균제참사 광주·전남 피해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들은 “1994~2011년까지 살균제는 최소 998만 개가 판매돼 수많은 가정에서 사용돼 왔다”며 “본인들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4월 30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접수된 피해자만 7441명이고 공식적으로 신고된 사망자만 1656명에 달한다”며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문제해결

을 약속했고, 4년이 지나고 있지만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됐지만, 특조위 진상규명 대상에 세월호만 포함되고 가습기참사는 삭제됐다. 여기에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에서 법에 보장된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기능의 조사가능마저 삭제돼, 사회적참사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기능이 무력화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관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고, 이날 광주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5·18 기간이기도 하고 광주 시민 사회에서 가습기 참사에 대해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점, 자치단체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 등 때문에 광주에서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구제가 끝났다. 가해기업들이 처벌받았다”는 인식을 바로잡고 추가 신고를 촉구하고 싶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자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석해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이야기 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내를 잃은 김태중씨는 “아내가 13년 동안 중환자실에 16번을 입원했다”면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는 물론, 재발방지대책 마련까지 정부가 종합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특조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신청한 사람은 188명에 달하고, 이중 4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남지역에서 신청한 피해자는 153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46명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참사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면서 “살균제 사용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직접증거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모여 병원 기록 등 가족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며, 살균제 제품 사진을 살펴보고 사용여부를 기억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2일 오전 광주시 서구 이마트 앞에서 광주·전남 환경단체 등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광주·전남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학기 유·초·중·고 전면 등교 추진”

교육부,코로나 따른 학습 격차·심리 발달 저해 심각 판단

교육부가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의 전면 등교 수업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에 마련되면 2학기부터 적용되는데, 개편안과 연계해 2학기엔 되도록 전면 등교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7월부터 수정·보완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의 학사 운영 지침도 새 거리두기 개편과 맞춰 수정하고, 새롭

게 등교가 시작되는 9월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 거리두기에 따른 등교 밀집도는 ▲1단계 3분의 2 이하 원칙이나 조정 가능 ▲1.5단계 3분의 2 이하 ▲ 2단계 3분의 1 이하 원칙(교고는 3분의 2 이하)이나 3분의 2까지 조정 가능 ▲ 2.5단계 3분의 1 이하 ▲ 3단계 전면 원격 수업으로 규정돼 있다.
교육부가 전면 등교를 고려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격차, 심리 발달 저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올 초 2021학년도 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한 이후 꾸준히 등교 확대 방침을 밝혀왔다. 지난 달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거세졌을 때도 학교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며 등교 수업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최근에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00~700명대로 오르내리고 있으나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교직원 백신 접종도 여름방학까지 완료되면 전면 등교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남교육청, 환경교육 지원단 운영 본격화

전남교육청이 전남의 환경교육 지원체계 구축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전남 환경교육 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1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22개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29명의 환경교육 지원단과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전남 환경교육 지원단 협의회’를 열고, 지원단 운영을 본격화했다.
전남 환경교육 지원단은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환경교육 지원을 위해 전남 지역 환경 전공 또는 업무(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나 교(원)감을 대상으로 22개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

지원단은 전남 학교생태환경교육 정책과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 환경교육 컨설팅을 진행한다.
전남 환경교육 지원단은 환경교육이 학교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서 나온 정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협의회에서는 환경교육 지원단의 역할과 학교에서의 환경 실천 운동 등을 분과별(동부·서부·중부)로 협의한 뒤 전체 협의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어 숙달도 국외 모의시험 호남대 세종학당 2곳 선정

호남대학교 세종학당인 중국 항저우 세종학당과 키르기스스탄 오시1 세종학당이 2021년 세종학당재단 한국어 숙달도 평가 국외 모의시험 운영 학당으로 선정됐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제1차 국외 모의시험은 중국·키르기스스탄·베트남·몽골 등 총 6개국 10개소 세종학당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그 중 2개국 2개소 세종학당이 호남대 항저우 세종학당과 오시1 세종학당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국 시도교육감 ‘5·18 공동 선언’ 채택 추진

시교육청, 오늘 안전 상정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5·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 공동 선언문’ 채택을 추진한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13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 컨벤션에서 열리는 제78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 안건을 상정한다.
선언문에는 시 교육청이 제작·배포하는 5·18 인정도서 2만권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육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5·18 연수·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

청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4·19, 부마항쟁, 대구 2·2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에 뿌리 내렸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시도 간에 협력하자는 의지도 담겼다.
그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5·18민주화운동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5·18이 학생들의 내면과 교실 현장, 전국의 학교에 더욱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세계대학랭킹 430위...전년비 10계단 상승 2021-2022 세계대학랭킹센터 발표...국내 11위 유지

전남대학교가 비영리 교육단체인 세계대학랭킹센터의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0계단 상승한 세계 430위에 올랐다.
전남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세계대학랭킹센터(CWUR)가 최근 발표한 ‘2021-2022 CWUR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2000개 대학 가운데 430위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11위, 거점국립대 2위를 유지했다.
전남대는 특히 ‘논문 성과’ 부문에서 세계 408

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CWUR 세계대학평가는 ▲교육 수준(동문들의 국제 수상 실적) ▲동문 취업(세계 유수 대기업 CEO 배출 실적) ▲교수 수준(교수들의 국제 수상 실적) ▲논문 실적 ▲우수 논문 ▲논문 영향력 ▲논문 인용도 등 총 7개 항목을 평가 지표로 삼고 있다. 이 평가는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정량 지표만으로 세계대학 순위를 결정해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

광주문화신협 예금 한시모집!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8개월 연 1.87%

세전 / 만기해지

12개월 연 1.80%

세전 / 만기해지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됩니다.

1인당 1,000만원까지 완전비과세 (광주 북구 및 광산구 거주민 가입 가능)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문화신협 첫거래시

행복적금 연 4.0%

(1인 월20만원 한도, 오픈뱅킹 가입조건) 세전 / 만기해지

주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탁금 및 적금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교세중합저축 가능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광주 북구 문흥로 38)

266-4150

양산지점 (북구 양산로 55)

573-4150

운암지점 (북구 북문대로 49)

528-4150

동림지점 (북구 북문대로 238)

513-4150

매곡지점 (북구 설곡로 315번길)

572-4150

첨단지점 (북구 첨단로 91번길과 2)

576-4150

동광주지점 (북구 동문대로 187)

264-4150

각화지점 (북구 동문대로 233, 235)

263-4150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광교심리책임자 심의필 제2021-25호(2021.04.30.) 유효기간(2021.05.03.-2021.05.31.)